

한화석유화학, 한화케미칼로 “재탄생”

3월19일 주주총회서 최종 확정 ... 태양광·바이오 신수종사업 본격화

한화석유화학이 한화케미칼로 새롭게 태어난다.

한화석유화학은 3월4일 이사회를 열고 사명을 한화케미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 회사 이름인 한화케미칼은 3월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석유화학은 1965년 설립돼 196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PVC(Polyvinyl Chloride)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2010년 말부터 중국 Ningbo에서 PVC 30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사우디아에도 2014년까지 EVA(Ethylene Vinyl Acetate) 32만5000톤 합작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 태양광, 2차전지 핵심소재, 탄소나노튜브(CNT), 바이오의약품 등 신수종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04>